

David Biggs, *Quagmire: Nation-Building and Nature in the Mekong Delt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0), xviii + 302 pp.

David Biggs, *Footprints of War: Militarized Landscapes in Vietnam*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8), xxii + 253 pp.

하재영†

고전적 환경사 방법론을 통한 근현대 베트남의 식민주의 개발과 제국주의 전쟁 비판 2부작

1.

유교 문화권의 여러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역사적 경로를 경험했던 국가였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적 시야에서 한국사를 바라보고자 하는 역사학자들이나 한국의 비교사 연구자들에게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근대 시기 베트남은 한국과 더불어 한자 문화권의 일부이자 조공-책봉 체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족류성(ethnicity)에 기반한 원형 민족국가(proto-nation-state)로서 주권을 유지하고, 이를 현대의 민족국가 형태로 발전시켰던 보기 드문 두 케이스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역사적 경로를 공유한다. 이러한 유사성은 근현대 시기에도 이어진다. 베트남과 한국의 봉건 왕조는 자체적인 근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부터 각각 프랑스와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식민화되었다. 두 지역을 통치한 식민 정부는 베

† 청화대학교, jaeyha8265@gmail.com

트남과 한국을 상품작물, 특히 쌀(베트남의 경우에는 고무까지)을 중점적으로 재배하는 농업 식민지로 육성하려 하였다는 공통점도 있다. 두 국가의 근대사를 관통하는 비운의 역사적 평행선은 해방 이후의 국가 분단, 그리고 미소 냉전의 대리전으로 분출된 열전(熱戰)의 비극에서 클라이맥스를 맞는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 베트남과 한국이 맺어 왔던 직간접적 관계는 한국사 연구자들이 베트남에 보다 주목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한다. 어쩌면 많은 한국어권 독자들은 베트남은 고려 시대 베트남 리 왕조의 전설적인 마지막 왕자 이용상(1174-?)의 망명 사건을 제외하면 베트남전쟁 즈음에야 직접적 관계를 맺게 된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지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베트남전쟁 이전에도 한국(남한)과 베트남의 관계는 팽창하던 일본과 미국의 동아시아 내 헤게모니를 매개로 밀접해지고 있었다. 가령 1930년대 이래 베트남의 일본 제국향 쌀 수출은 한국의 식민지 농정의 주요 변인 중 하나였으며, 1950년대에 남베트남과 남한은 미국의 중개에 의해 농촌 공동체 재건 및 산림 녹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한 바 있다. 물론 이 모든 직간접적 관계를 차치하고서라도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남한이 참전하여 베트남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베트남사는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들이 응당 책임 의식을 갖고 접근하여야 하는 주제이기도 하다.¹

한국사 연구자들이 베트남사에 주목하여야 하는 두 이유—독자적 족류성의 유지와 베트남전쟁 전후사—는 사실 베트남사를 관통하는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바로 베트남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어떻게 주변 강대국의 헤게모니에 완전히 제압되지 않고 독자적 정체성과 독립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그것이다. 베트남사에 무지한 필자가 이 자리를 빌어 이 질문에 대한 완성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대신 한 가지 요인을 제기할 수는 있다. 바로 “환경”이다. 적대적 강대국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라면 자연스럽게 한국어권 독자들은 베트남의 열대 우림이나 산간 지대를 떠올릴 것이다. 이러한 험준한 지형은 베트남의 산개한 저항군에게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 침략군을 격퇴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급격한 서고동저를 이루는 베트남의 지형과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 덕택에 베트남은 남북과 동서의 각 지역마다 최적화된 작

¹ 한국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허은, 『냉전과 새마을 :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와 분단국가체제』 (창비, 2022)을 들 수 있다.

물이 다르며, 이는 중원의 농경민이 정착하기 까다로운 환경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길게 뻗은 국토와 산지, 그리고 남부 메콩 델타의 습지대는 베트남의 역대 왕조가 근대까지 통일 왕조를 완전히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기도 하였으며, 몽족, 크메르족 등의 소수 족류(ethnic minority)가 오늘날까지도 통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혼재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요컨대, 환경결정론적 시각을 벗고 보아도, 베트남의 환경적 요인—지형, 지질, 기후, 식생,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맺어왔던 관계에서 드러나는 독자성은 그대로 베트남이 한국과 더불어 조공 질서 내에서 족류성을 유지하고 대외의 침략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환경사를 넘어 동아시아 환경사의 결작으로 남을 두 작품, *Quagmire: Nation-Building and Nature in the Mekong Delta* (이하 『콰그마이어』) *Footprint of War: Militarized Landscapes in Vietnam* (이하 『전쟁이 남긴 발자국』)을 써 낸 데이빗 빅스(David Biggs)의 문제의식도 이와 흡사하다. 베트남사를 조망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했던 환경, 그리고 베트남인(그리고 소수 족류들)과 환경이 맺어왔던 “다양하고 중층적인 협상의 장(5)”이 많은 현대 베트남사 서술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다. 가령 그의 첫 번째 책 『콰그마이어』에서 빅스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경험했던 전쟁의 수렁(quagmire)이 상징적으로 펼쳐졌던 메콩 델타 전역이 많은 영어권 저서에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렁은 언제나 메타포였지 수렁 그 자체가 베트남전을 다룬 역사 서술, 혹은 베트남사에서 주요 요인이나 행위자로 다뤄진 바는 없다는 점을 토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빅스는 『콰그마이어』에서는 메콩 델타의 늪지대, 『전쟁이 남긴 발자국』에서는 북위 17도선 근방의 구 남베트남령 후에와 다낭을 중심으로 한 중부 해안 및 산악지대의 환경과 생태계에 돌보기를 들이댄다. 때로는 전쟁사학자의 눈을, 때로는 자연과학자의 시각을, 때로는 토착 농민의 시각을 취하며, 빅스는 이 지역의 환경이 전근대 국가, 식민 국가, 냉전기 민족 국가의 국가 건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펼쳐진 식민 전쟁과 양자 대전, 그리고 베트남전쟁은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변용시키고 현지 행위자들의 대응을 이끌었는지를 서술한다.

『콰그마이어』와 『전쟁이 남긴 발자국』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미덕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지역을 택하는 대신 파편화된 기후, 식생, 토양, 그리고 거기

에 펼쳐진 매일매일의 삶의 기억을 구조화하여 전체적인 실체로 재건하였다는 점이다. 빅스의 두 책에 드러난 “자연”은 최근 환경사 저자들이 많이 택하는 행위자로서의 자연이라기보다는 각양각색의 인간 군상들이 풀어내는 이야기가 상영되는 살아 있는 무대에 가깝다. 빅스는 미국, 프랑스, 베트남의 사료관에서 찾아낸 조사 보고서와 군사 자료, 특히 항공 촬영 이미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메콩 델타와 중부 산악지대 두 지역의 대략 150여 년에 이르는 환경 변화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빅스는 지형과 식생, 토지 이용 방식과 촌락의 건설과 파괴의 과정, 이어지는 생태계의 변환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이라고 부르는 요소들을 텍스트상에 재현한다. 이 자연환경이라는 무대야말로 빅스가 말하듯 식민 지배와 자본주의 질서로의 편입, 전쟁, 그리고 오늘날 산업화와 글로벌화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인들의 일상이 구조화되는 한편, 개발과 파괴, 학살과 재건의 기억이 수십 년을 주기로 차곡차곡 덮여씩워져 왔던 공간이다. 그러한 면에서 빅스의 환경사 연구 방법론은 보다 고전적 환경사 서술에 가깝고, 과거의 아날 학파의 향수가 느껴지는 서술 방식이기도 하다.

아무리 빅스의 저서가 환경의 전체상을 재구성하는 데에 엄청난 공을 들였고 고 하더라도, 그의 방법론이 고전적인 방법론의 답습에 불과했다면 그의 저서 『과그마이어』가 영어권 최고의 환경사 저서에 주어지는 조지 퍼킨스 마시 (George Perkins Marsh) 상을 수여받는 영예를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빅스의 또 다른 미덕은 과거의 장기 환경사 서술들이나 아날 학파가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던(심지어는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식민주의 경영과 제국주의 전쟁을, 플랜테이션, 준설, 소개(疏開), 군사화가 생태와 지역 공동체에 끼쳤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실증적으로 비판하였다는 점에 있다. 가령 빅스의 두 책은 생태학적 천이(遷移)와 잦은 황폐화가 식민주의 농업과 군사 원조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어떻게 식민 지배가 저항으로, 제국주의 전쟁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증한다. 이를 위해 빅스의 두 책은 모두 처음 두 챕터를 식민 지배 이전부터 초기까지, 다음 두 챕터를 식민지 시기, 마지막 두 챕터를 베트남전쟁 전후에 할애한다. 각 챕터에서 충실히 수행된 생태계와 지역 사회의 생산양식에 대한 텍스트적 재현을 통해, 독자들은 해당 지역에 일어난 생태학적 변동이 지역의 전통적 사회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독자들은 왜 지역 주민들이 식민주의와 미국의 근대화 계획 하에 추진되던 환경 공학 프로젝트에 반발하였고, 결국 이

러한 프로젝트가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을 실증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빅스가 베트남의 식민 농업과 군사 원조의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델타와 중부 산악지대를 각각의 저서의 주 무대로 택한 것은 실로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식민주의와 냉전이 베트남의 환경에 남긴 피비린내 나는 “발자국(footprint)”에 대한 빅스의 치열한 탐구는 미국의 아시아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는 역사적 부채 의식에도 기인한 바 있겠지만, 빅스 자신의 개인사에 대한 자기위치적 성찰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전쟁이 남긴 발자국』 서문에서 빅스가 밝힌 바와 같이 빅스의 부친은 미 해군 출신이었으며, 이 때문에 그는 유년기를 군 기지에서 보냈다. 그는 성장하면서 환경운동과 걸프전 반대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젊은 시절에는 베트남에서 자원봉사자로 영어를 가르친 경험도 있었다. 이러한 유년기 경험이 자신을 베트남사와 환경사 전공자로 인도하게 되었다고 빅스는 밝히고 있다. 그가 불어와 베트남어 자료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베트남에 가서 수많은 현지 조사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말하자면 군인의 자녀로서 백인 아시아 연구자로 성장했다는 자기 위치성(positionality)에 대한 자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요컨대, 빅스의 두 책은 역사적 문제의식, 자기 위치성, 그리고 광범위한 사료 조사를 통한 과거 환경의 재구축이 결합했을 때, 환경사 역시도 비판적 제국주의 및 냉전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렇다면 각 책의 구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2010년에 나온 『과그마이 어』는 빅스가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식민지 및 냉전기 “국가 건설(nation-building)” 과정에서 환경은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인간 행위자들은 이를 어떻게 재구성하려 하였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저작이다. 빅스는 이 책에서 장장 200여 년에 이르는 메콩강 델타의 역사를 반복되는 수로 건설과 방기(放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내러티브로 묶어낸다. 그럼으로써 빅스는 미국인들에게 베트남전쟁의 수렁을 상징하는 미개발된 야만의 공간—대표적으로 영

화 “지옥의 묵시록”에 묘사된 바 있던—으로만 여겨지던 메콩 델타가 근대 초입의 베트남 봉건국가에게는 남진을 위한 프론티어였으며, 프랑스 식민지배자들에게는 개간과 준설의 기술과 문명화 사명을 과시하는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델타를 프론티어, 혹은 개간의 공간으로 보았던 국가 관료들과는 대조적으로, 현지 농민들은 델타의 거친 자연이 일거의 기계화로 길들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협력하거나 순종하여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델타 농민들은 수 세기에 걸쳐 작물을 늪지대에 맞게 개량하고, 모심기 방식도 토지가 건조한 북부 베트남의 방식에서 습지에 최적화된 크메르 선주민들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국가 행위자들과 농민 행위자들이 델타의 환경을 대하는 대조적인 방식이야말로 어쩌면 이 지역의 국가 건설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베트남전 당시 가장 치열하게 미군과 남베트남군에 저항했던 지역으로 남게 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문 1장과 2장은 프랑스의 군함 외교와 준설 프로젝트가 왜 남부 메콩 델타 지역에 집중되었는지를 1930년대까지 프랑스 식민지배자들에 의해 행해졌던 대규모 수로 네트워크 건설에서 찾는다. 1870년대부터 이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한 프랑스 식민지배자들은 델타의 습지대가 자국 함대가 델타의 내륙까지 접근할 수 있는 교통로이자 쌀 플랜테이션 건설을 위한 농업용 관개수로로 개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준설 작업을 통해 일정한 수심을 확보하고, 독을 건설하여 바닷물의 유입을 차단해야 했다. 이 때문에 식민지배 초기부터 델타에서는 델타를 항행이 가능한 수로 네트워크이자 농업용 관개 수로로 바꾸는 대규모 준설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위와 같은 프로젝트를 가능케 한 준설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준설선이야말로 델타의 사람들이 물과 상호작용했던 방식을 결정적으로 전환시킨 신기술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프랑스 지배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프랑스의 준설 사업은 델타 선주민들의 생산양식과 충돌함으로써 이 지역의 농업공동체에 타격을 가하였다. 저자는 그 예로 준설과 독 건설 과정에서 기존 선주민들의 소유권이 무시되기도 하였으며, 일부 마을에는 잦은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여 프랑스 식민지배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 원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불만은 1930년대 이래 이 지역에서 지지를 얻기 시작한 베트남 민족주의운동의 한 원인이 되었다.

3장은 대공황이 초래한 쌀값 폭락과 이로 인한 플랜테이션의 붕괴, 그리고

이에 뒤따른 환경 위기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정착촌이 버려지고 숲이 개간되면서 주변 수로의 물이 정체되고 이에 따라 황산알루미늄이 축적되며 토양 산성화가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토양의 산성화로 인한 농업생산성의 저하로 프랑스인들은 플랜테이션을 베트남 토착 지주들에 매각하기 시작하였는데, 토착 지주들은 프랑스 지주들보다도 더욱 고율의 소작료를 수취하였다. 플랜테이션의 황폐화에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 식민정부는 북부 톤킨만 주변의 유민들을 모아 남부 델타로 보내고 이들을 위한 폐쇄형 정착촌을 만든다. 하지만 저자는 환경 위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던 지주소작제가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 농민들은 임금노동자, 혹은 사실상의 농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향후 델타 지역 농민 봉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4장은 황폐해진 수로 네트워크가 전후 식민권력의 진공 상태와 겹쳐 이 지역에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과정을 논의한다. 이미 일본 점령기(1940-1945) 약점을 노출한 프랑스 지배 세력은 1945년 이후에도 델타 지역에 대한 통치력을 쉽사리 회복하지 못했다. 프랑스 세력이 약화되자 델타에는 베트민과 민간종교 집단을 위시한 저항 세력이 자리잡아 사실상의 군벌 통치를 행했다. 이 중 특히 베트민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델타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프랑스군은 훗날 델타 지역의 미 연안해군(brown-water navy)의 전신이 되는 내륙 수군을 만들어 베트민과 민간종교 집단 점거지—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수중 인클레이브(water enclave)—를 토벌하려 했으나, 2차대전 동안 수로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항행에 어려움이 있던 탓에 이들의 토벌은 매우 어려웠다. 저자는 한편 베트민이 통치한 델타의 해방구에서 인구와 농업생산량이 식민지 시기보다 증가했다는 사실을 들며 델타 식민주의 농업의 진정한 문제는 준설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빈곤화와 소외였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5장과 6장에서 저자는 독자들을 베트남전쟁 전후 시기의 메콩 델타로 이끈다. 이 장의 중심 주제는 1954년 이래 미국이 수행한 격자형 수로 네트워크와 그 사이사이에 계획된 현대적 농민 정착촌 애그로빌(agroville) 프로젝트가 어떻게 실패하였는가에 대한 것이다. 미국인 고문관들은 준설 작업을 다시 시행하고, 수로의 중간중간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현대식 “뉴타운” 애그로빌을 건설함으로써 베트민과 이를 이어받은 베트콩의 풀뿌리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대농장 소유주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응오딘지엠 정권 하에서 농

민들의 자영농화는 지체되었고, 애그로빌 역시도 남베트남군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감시 하에 농민들이 노동을 강요받는 집단 거주지로 변질되었다. 베트남에 대한 지지와 남베트남 정권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상황에서 베트남전쟁기 미군이 이 지역 소규모 수로와 항행 조건을 꿰뚫고 있던 베트남의 저항 네트워크에 고전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미국은 내륙 수운을 통한 토벌 작전 외에도 프랑스와 일본인 기술자들까지 초빙한 대규모 델타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델타를 다시 한번 남베트남의 농업 프론티어로 발전시키고자 했지만, 이는 너무 늦은 조치였다. 게릴라전의 여파 속에서 농민들은 안전을 위해 델타를 떠났고, 수로의 수위는 지나치게 상승하게 되었으며, 황폐화는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수십여 년에 걸친 제국들의 델타 길들이기는 결국 사이공 함락과 함께 실패한 프로젝트임이 판명되게 된다.

빅스의 다음 저작인 『전쟁이 남긴 발자국』은 또 다른 치열한 전장이었던 트아티엔후에(Thừa Thiên-Huế)성을 중심으로 한 중부 고지대를 다룬다. 이 책에서는 전작 『과그마이어』와 대비하여 크게 두 가지 점이 눈에 띈다. 먼저 전쟁과 군사화(militarization)가 가져온 경관(landscape)의 변화를 핵심 주제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군사화란 단지 군사 작전이나 군기지가 환경에 가한 변화만이 아닌 군이 한 사회에 개입함으로써 동반되는 광범위한 사회화 과정을 의미한다. 한편 빅스는 경관에 대해서는 역사 속 “물리적, 문화적, 역사적 요소를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의 연결체”라고 정의한다. 가령 경관은 물리적 실재일 수도, 문화적 형상일 수도 있고, 같은 시공간 내에 함께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요컨대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경관은 항공사진을 통해 분석된 산림과 토양의 물리적 변화를 가리킬 수도 있고, 사진이나 그림에 묘사된 토착민들의 파괴된 무덤과 같이 보다 문화적인 요소를 가리킬 수도 있다. 저자는 복합적인 경관의 재구축을 위해 프랑스와 미국의 국립사료관에 공개되어 있는 광범위한 지도군 및 항공사진군을 활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GIS를 활용해 시각화한다.

『전쟁이 남긴 발자국』의 1장과 2장에서 저자는 20세기 초까지 전쟁과 침략, 저항으로 점철되었던 트아티엔후에 지역의 역사를 살펴본다. 저자는 1장에서 이 지역이 고대 이래 바다와 산맥이 근접해 있는 관계로 중국 및 홍강 일대에서 남하한 북방 세력, 토착민 참인(Chams), 그리고 서쪽의 크메르인 세력 간의 각축장이 되어 왔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 지역은 1400년대 베트남 왕조의 세력권

으로 통합되었지만, 이어지는 반란과 해양 세력의 침입에 의해 황폐화되었고 프랑스 식민지배기에는 프랑스 지주들에 의해 상품작물 플랜테이션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식민지배기 내내 후에 주변의 산지민들은 식민지배에 대항하는 반란을 자주 일으켰으며, 식민 정부는 다낭 주변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장을 비롯한 군사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저자의 주요 사료인 항공 사진은 이러한 후에 주변 군사화의 결과물이기도 하였다. 식민지배자들은 이러한 항공 촬영을 통해 산지 부족(部族)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공 촬영을 통해 포착된 험량한 산지를 공개하고 이러한 산지는 서구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만 재산림화할 수 있다는 이른바 “녹색 제국주의” 담론을 통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전쟁이 남긴 발자국』의 3장과 4장은 2차대전 이후 항불 독립전쟁과 그 이후 남베트남 지배 시기를 다룬다. 후에 지역은 항불전쟁 기간 동안 베트민과 프랑스군, 특히 아프리카와 아랍 지역에서 훈련받은 식민지 출신 진압군 사이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 곳이었다. 고지대 마을 사이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저항하고 있던 항불 게릴라를 진압하기 위해 프랑스군은 해안가의 저지대에 군사시설을 증강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항불 게릴라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프랑스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감만 증대시킬 뿐이었다. 1954년 제네바협약 이후에도 이 지역은 남북 베트남 사이의 접경지대로 남게 되면서 항불전쟁 동안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되었다. 1954년부터 1965년 간의 전간기 동안의 군사화가 이 지역에 남긴 주요 경관의 변화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미국이 프랑스가 남긴 이 지역의 군사시설을 접수하게 되면서 이 지역 군사기지는 미국의 글로벌 군사 운송 네트워크의 하나로 편입되게 되었다. 둘째는 여전히 고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공산 게릴라를 토벌하기 위한 지엠 정권의 공포정치와 전략촌(strategic hamlet)으로 대표되는 반공 촌락의 확대, 그리고 화전(火田)의 소거이다. 저자는 이러한 작전이 궁극적으로는 산간 지역 베트민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 경제의 파괴를 목표로 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5장과 6장은 베트남전쟁기와 그 이후의 이 지역 역사를 다룬다. 이 지역의 경관이 베트남전쟁 당시 제초제, 고엽제의 과다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원인을 저자는 프랑스 식민지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후의 군 비행장에서 찾는다. 이 비행장은 주변 토양의 오염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초제와 고엽제를 산간 지역

에 뿌리던 미군 비행기의 이륙 지점이었다. 저자의 GIS 데이터는 후에 주변 산간지역이 고엽제의 주요 살포 지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러한 고엽제 투하는 산간 작전지역의 옴호용 녹초지대를 파괴할 목적도 있었지만, 농경지에도 살포되어 산간 게릴라와 이를 지지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전쟁 당시 이 지역은 또한 1차 대전 이래 가장 집약적인 포탄 사격이 수행되었던 장소가 되어 수많은 피난민을 양산했다. 결론을 대신한 6장에서, 저자는 여전히 후에 지역에 산재한 버려진 군기지와 군사구역의 존재로 인해 조상의 무덤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살핀다. 한편 고엽제로 인해 한때 25퍼센트로 추락했던 베트남의 산림축적량은 현재 44퍼센트까지 올라가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외래 수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역시 식민지배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고 저자는 언급한다.

3.

이렇듯 빅스의 두 책은 각각 수로와 산이라는 특징적 환경의 변천만을 주제로 삼은 좁은 의미에서의 환경사 서술이 아닌, 식민지배, 전쟁, 저항, 그리고 민족 국가 건설이 어떻게 국가와 지역의 행위자들이 환경을 이용하거나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지를 분석한 총체적 역사 연구서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이 빅스의 두 책이 환경사학자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근현대사, 냉전 개발사, 횡태평양(trans-Pacific) 미국 제국주의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두루 환영받은 까닭이었을 것이다. 최근 미국 학계에서 베트남을 다룬 연구들 가운데에는 기존의 외교 및 군사에 초점을 맞추었던 저서들에 비해 특히 개발을 매개로 (남)베트남 국가 및 지역 주민들의 행위능력(agency)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출견으로는 이 지역 근현대사 서술에 있어 여전히 환경은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역사적 경로의 흐름이 그 지역의 인간과 환경이 관계 맺는 방식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베트남과 같이 지역에 따라 지형, 기후, 식생이 천차만별인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는 점을

² 대표적으로는 Edward Miller, *Misalliance: Ngo Dinh Diem, the United States, and the Fate of South Vietna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을 들 수 있다.

고려하면 이는 분명 아쉬운 대목이다. 때문에 빅스의 책은 장기적 환경 변화를 추적하거나, 제국과 민족국가의 각종 프로젝트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변형된 환경이 다시 주민의 생산양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식민국가, 민족국가, 그리고 제국과 세계를 보는 방식을 어떻게 다르게 하였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동아시아사 연구자들에게 큰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서구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비서구 현지의 환경을 변모시키는가를, 나아가서는 국가 및 지역공동체의 행위자들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형시키는가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에게도 이 책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에서 서구의 과학기술이 분명 동아시아 각국의 근현대사 경로의 결정에 큰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기술과 지식 이전(移轉)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서구와 수혜자 사이의 비대칭성이 문헌 사료에 대한 독해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빅스의 책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엘리트 행위자, 즉 현지 농민 및 노동자에 의해 서구로부터 이전된 지식과 기술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자연의 대응은 지역공동체와 생태계에 어떠한 연쇄 효과를 일으켰는지 살펴볼 것을 권한다. 가령 두 책에서 거론되는 프랑스의 준설선이나 미국의 항공사진과 같은 사례는 서구의 기술이 끼친 환경에의 영향과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대응이 과학기술사 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들에게도 이 책은 문제의식이나 방법론의 측면에서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이다. 두 책이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식민주의 환경 공학 프로젝트와 개발, 군사화에 의한 경관 변형, 게릴라 전쟁과 지역공동체의 형해화는 모두 한국사 연구자들에게 낯선 주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빅스의 책에 서술되는 환경위기—토양 산성화, 산림 파괴—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과 미국의 “녹색 제국주의”는 1950년대 남한에서도 흡사하게 발현되어 동시기 산림녹화, 무연탄광 개발, 산간 도로 건설 등의 환경 공학 프로젝트가 미국의 주도로 수행된 바 있기도 하다.³ 때문에 필자는 이 책이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한국사학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서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

3 미국의 “녹색 제국주의”와 냉전기 남한 산간 지역의 환경 공학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줄고, Jaeyoung Ha, “Frontier Above the Clouds: A Trans-Pacific History of Mountain Engineering in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of UC San Diego, 2024)를 참고.

라 남한과 베트남 간의 관계를 통해 현대 남한의 동아시아 속의, 그리고 미 제국 내에서의 자기위치성을 성찰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쟁이 남긴 발자국』의 주요 무대인 후에 및 다낭 지역은 남한군이 파병되어 활동했던 지역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남한 관광객을 위한 관광 지구로 개발되어 있다. 베트남전쟁은 종료되었지만, 전쟁 당시 발현된 남한의 하위 제국 주체성(subimperial subjectivity)—문학 연구자 진경 리(Jin-kyung Lee)가 말하는—은 오늘날까지도 후에 및 다낭 지역의 경관 변화에 고스란히 아로새겨지고 있는 셈이다.⁴ 남한 사회가 동남아시아 각 국가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늘날, 빅스의 두 책은 환경사, 과학기술사의 중요한 참고 서적일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의 자기성찰에도 중요한 지침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남한사회의 하위 제국 주체성에 대해서는 Jin-kyung Lee, *Service Economies: Militarism, Sex Work, and Migrant Labor in South Korea*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참고.